

안내 문서

나이로비-카이로 제안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

2026년 3월 발행 / 사순절

ANGLICAN
COMMUNION
IN OVER 165 COUNTRIES





환영합니다

IASCUFO의 나이로바-카이로 제안 작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로바-카이로 제안(NCPs)*은 차이와 분열 속에서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증진하고 공동체적 상통을 심화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신학 보고서입니다.

NCPs는 2024년 대림절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성공회공동체 내의 차이점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조와 의사결정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수행하기 위해 2023년 세계성공회협의회(ACC)에서 수임한 장기 과업의 결과물입니다.

세계성공회협의회(ACC)**의 결의안은 “가능한 최고 수준까지 함께 걸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차이를 인내심 있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수용하는 법을 우리의 에큐메니칼 대화로부터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4년 이후, IASCUFO는 원본 제안들에 대한 몇 가지 개선안을 담은 보충 자료(Supplement)를 발표했습니다.

*나이로바-카이로 제안(NCPs)*은 2026년 벨파스트에서 열리는 다음 세계성공회협의회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본 안내 문서는 권고 사항들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이는 IASCUFO의 핵심 문서들에 대한 부속 자료로 개발되었습니다.

전체 제안서 읽기

IASCUFO의 작업을 공유하는 두 가지 문서를 읽어보십시오:

- *나이로비-카이로 제안서* (2024년 2월 발간)
- *보충 문서* (2026년 3월 발간)

전체 문서 읽기 및 IASCUFO 활동 관련 영상 시청:

anglicancommunion.org/nairobi-cairo-proposals

제안서란 무엇인가요?

Q1 *나이로비-카이로 제안서란 무엇인가요?*

*나이로비-카이로 제안(NCPs)*은 2024년에 발표된 주요 신학 문서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세계성공회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문서는 전 세계 성공회 교회들이 어떻게 그들의 일치를 심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이는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냄으로써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 문서는 성공회 공동체가 스스로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 그리고 리더십이 어떻게 공유되는지에 관한 몇 가지 실질적인 권고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2026년 벨파스트에서 열리는 차기 세계성공회협의회(ACC) 회의에서 핵심 의제가 될 것입니다.

Q2 *나이로비-카이로 제안서 보충안이란 무엇인가?*

이 보충안(2026년 3월 발표)은 2026년 로마에서 열린 IASCUFO 회의 이후에 마련되었으며, 위원회가 접수된 피드백에 비추어 원래의 제안들을 재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몇몇 분야에서 이 자료는 핵심 권고 사항들을 개선(refine)하였습니다. 이 두 문서는 제 19차 세계성공회협의회(ACC-19) 이후에 하나의 단일 문서로 통합될 가능성이 큼니다.

Q3 *이 문서들은 누가 작성/발행했나요?*

이 문서들은 IASCUFO(성공회 일치·신앙·직제 위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선발된 성공회 신학자들로 구성된 상설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의 목소리는 다양한 관점들을 대변합니다.

Q4 *나이로비-카이로 제안은 누가 의뢰했나요?*

이 위원회는 2023년 가나에서 열린 세계성공회협의회 회의에서 이 과업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이는 '공동체적 상통의 도구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여전히 그 목적에 부합하는가?"라고 정직하게 질문할 것을 요청했던 2022년 람베스회의의 부름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성공회협의회(ACC) 절차와 결정

Q5 세계성공회협의회(ACC)란 무엇이며, 누가 발언권(참여권)을 가집니까?

세계성공회협의회(ACC)는 네 가지 공동체적 상통의 도구들 중 하나로, 본질적으로 세계성공회공동체 내에서 일치와 선교를 촉진하는 핵심 기구 중 하나입니다. 세계성공회협의회(ACC)가 소집될 때, 여기에는 다양한 성공회의 목소리들이 모입니다. 각 회원 교회에서 두 명 또는 세 명의 대표가 참석하며, 그중 한 명은 반드시 평신도여야 합니다. 다른 세 가지 공동체적 상통의 도구들은 캔터베리 대주교, 람베스회의, 그리고 관구장회의입니다.

Q6 개별 교회들이 이 제안들을 직접 채택해야 합니까?

아니요. 개별 회원 교회들이 자체 의회(synod)에서 이 사항에 대해 표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제안들은 세계성공회공동체 전체가 스스로를 어떻게 기술해야 할지, 그리고 공동체적 상통의 도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각 교회는 이러한 구상들에 동참할 것을 따뜻하게 권고받지만,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회원 교회들의 헌법적 영향도 없습니다.

제안 내용 요약

Q7 이 제안들이 권고하는 주요 사항들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두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첫째, 세계성공회공동체가 스스로를 기술하는 방식을 갱신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백 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공동체적 상통의 실제 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계성공회공동체의 핵심 기구들, 즉 도구들(Instruments)의 리더십을 확장하여 성공회의 세계적인 다양성을 더 잘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Q8 원안과 보충안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주요 수정 사항은 리더십이 공유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2024년 문서에서 IASCUFO는 세계성공회협의회(ACC)의 순번제 의장직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성찰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는 더 세밀한 접근 방식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것은 권역(regional) 관구장들이 세계성공회공동체 전반에 걸쳐 캔터베리 대주교의 직무를 더 많이 분담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2026년 보충안은 이러한 업데이트된 내용을 제시합니다. 또한 주로 의례적인 역할인 프레지던트로(president)로 불리는 현재의 의장직을 폐지하여 세계성공회협의회(ACC)의 구조를 단순화하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개선(refinements)이지,

방향의 전환이 아닙니다.

세계성공회공동체에 대한 기술 (description)을 갱신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한 질문들

Q9 성공회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seek)’고 표현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성공회 공동체의 헌신을 약화시키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믿음의 일치를 향해 성장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는 열망과 여정의 언어이지, 실패나 상대주의의 언어가 아닙니다. ‘노력하다’(seek)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직함의 표현이지, 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신앙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 신앙에 헌신하고 있고, 완전한 일치에 우리가 여전히 함께 이루어가야 할 과제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Q10 이것이 세계성공회공동체를 느슨한 연방체 (federation)로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실, 이 제안들은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성공회공동체는 단순히 역사적인 우연이 아니라, 실재적이고 살아있는 유대(bonds)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한 유대에는 공유된 신앙, 공유된 전례, 공유된 사목과 봉사의 양식, 함께 협의하겠다는 헌신, 그리고 캔터베리와의 역사적이고 지속적인 연결이 포함됩니다. 연방체(federation)가 편의에 의한 결합이라면, IASCUFO가 묘사하는 것은 훨씬 더 실질적인 것입니다. 즉, 함께 견도록 진정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의 공동체적 상통(communion)입니다.

Q11 ‘캔터베리와의 역사적(historic) 연결’이라고 말할 때, 그 관계가 단지 과거의 역사일 뿐이라는 뜻입니까?

‘캔터베리와의 역사적 연결’이라는 표현은 동시에 세 가지 방향을 가리킵니다. 첫째는 공동체 내 많은 교회들의 기원이며, 둘째는 고대 사도 전승의 상징으로서 캔터베리가 갖는 위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가장 결정적인 것은—세계성공회공동체에 주어진 인격적이고 사목적인 선물로서, 캔터베리 대주교와 맺고 있는 지속적이고 현재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연결이며, 단지 과거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Q12 이것은 성공회 정체성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다시쓰기입니까?

세계성공회협의회(ACC)와 관구장회의는 모두 20세기 후반에 설립되었으며, 모든 회원

교회에 평등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세계성공회공동체가 캔터베리 중심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중심에 있는 잉글랜드 성공회’ 모델은 이미 지나간 시대의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성공회 신자들은 지구 남반구(Global South)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 상통에 대한 그 어떤 정직한 설명도 반드시 이러한 현실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제안들은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역사를 따라잡고 있는 것입니다.

Q13 이 제안들은 교회들이 세계성공회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까?

아니요. IASCUFO의 위원들은 가장 전통적인 견해부터 가장 진보적인 견해에 이르기까지 성공회의 모든 의견 스펙트럼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제안들은 단지 공동체를 떠나려는 경향이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도전 과제를 던집니다. 이 문서들에 대한 반응 또한 모든 방향(진영)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제안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심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Q14 나이로비-카이로 제안(NCPs)이 현재 세계성공회공동체의 일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성공회 교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NCP는 세계성공회협의회(ACC) 헌장에 명시된 대로, 새로운 회원 교회가 ACC의 목록(Schedule)에 추가되는 현재의 절차를 재확인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모든 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관구장들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결정됩니다. 또한 성공회에는 '지리적 관할권의 중복(parallel geographical jurisdictions)'을 일반적으로 피해 온 중요한 에큐메니칼 원칙이 있습니다. 확실히, 같은 권역(regional)이나 영토 안에 두 개의 회원 교회가 있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려면, 비록 특정 측면에서 여전히 의견이 다를지라도, 공동체적 상통과 화합에 대한 강력하고 공유된 헌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Q15 IASCUFO가 개정한 세계성공회공동체에 대한 묘사는 교회일치적(ecumenical)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계성공회협의회(ACC)는 IASCUFO에 공동체가 참여해 온 에큐메니칼 대화들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즉, "실재하는 차이를 없는 척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유지해 나갈 것인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것들은 성공회가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에큐메니칼 대화를 통해 다른 그리스도교 전통들과 함께 풀어나가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나이로비-카이로 제안(NCPs)은 바로 그 지혜를 끌어온 것입니다.

IASCUFO가 이 제안들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프레임워크는 어떤 사안을 완화하거나 어려운 질문을 피하기 위해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빌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완전한 일치에 향한 여정 위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진리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지를 기술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가장 정직하고 검증된 어휘입니다.

리더십 확대를 위한 제안들에 관한 질문들

Q16 왜 나이로비-카이로 제안(NCPs)은 캔터베리 대주교 직무의 동료관계적(collegial)적 공유를 제안합니까?

여러 면에서 이 제안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동료관계적(collegial) 접근 방식들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캔터베리 대주교와 관구장회의 사이의 점점 더 협력적이고 동료관계적인 사목 양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상적인 모습이 되었으며, 특히 저스틴 웰비 대주교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습니다. 2024년 관구장회의 또한 (관구장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권역(regional) 관구장들의 도움을 통해 세계성공회공동체 내에서 캔터베리 대주교의 직무가 “보조를 받고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권역(regional) 관구장들은 이미 캔터베리 대주교의 사목적 직무의 여러 측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세계성공회공동체를 대표하고, 새로운 관구들을 지원하며,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과 동행합니다. 이 (권역별 관구장들의) '협의회(council)'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권한 이상의 권한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대주교는 회원 교회들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며, 오직 요청이 있을 때만 사목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Q17 이것이 캔터베리 대주교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입니까?

이 제안은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사목 직무의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제안은 캔터베리 대주교의 직무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를 더 자유롭게(freeing)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직무를 더 동료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것은 그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지속 가능하게 하고 더 진정으로 세계성공회공동체 전체에 걸친 직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IASCUFO는 2023년에 이 신학적 작업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았으며, 나이로비-카이로 제안(NCPs)은 사라 멀럴리 대주교의 임명 훨씬 이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작업은 전임 캔터베리 대주교인 저스틴 웰비에 의해 지지받았습니다. 로완 윌리엄스 대주교 역시 (공동체적 상통의) 도구들에 대한 더 폭넓은 소유권(ownership)의 필요성을 유사하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는 제 19차 세계성공회협의회(ACC-19)에서 나이로비-카이로 제안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 직무의 이러한 동료관계적 공유 전망이 타당하다면, IASCUFO는 대주교와 권역(regional) 관구장들이 그 구조와 명칭, 그리고 소관 업무를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Q18 왜 나이로비-카이로 제안(NCPs)은 세계적인 공동체
내의 리더십에 대한 갱신된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까?

세계성공회공동체는 매우 다양하며 165 개국 이상에 퍼져 있습니다. 수천만 명에 달하는 구성원의 대다수는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 삶을 형성하는 공동체적 상통의 도구들은 이러한 세계적 정체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Q19 동료관계적 공유가 관구장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제안들은 새로운 권한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의 사목적이고 대표적인 차원들이 더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는 대부분의 에큐메니칼 상황에서 여전히 세계성공회공동체의 추정적(presumptive: 특별한 반대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인정되는) 대표 얼굴(face)로 남을 것입니다.

Q20 나이로비-카이로 제안(NCPs)은 세계성공회공동체
내에서 잉글랜드 성공회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세계성공회공동체의 모든 회원 교회는 독립적이고 자치적입니다. 잉글랜드 성공회는 그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똑같이 소중한 회원이며, 이 제안들은 그러한 평등을 반영합니다. 이 제안들은 세계성공회공동체의 삶에서 잉글랜드 성공회가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전 세계 모든 회원 교회가 공유하는 삶을 경축합니다.